



“마치 내 이야기 같아” 각양각색 연애 고민 공감

▲SBS TV ‘연애도시’

tvN ‘모두의 연애’▶

‘연애도시’ ‘모두의 연애’ 등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인기

드라마 속 선남선녀의 로맨스도 좋지만 사실 그보다 공감을 건 내 주변의 갑남을녀가 어떻게 연애하는지가.

현실의 연애는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쿨’하지도 못하다.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드라마 주인공 못지않게 전국과 지옥을 오간다. 이 심리를 활용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최근 SBS TV가 선보인 ‘잔혹하고 아름다운 연애도시’(이하 ‘연애도시’)는 과거 히트한, 비슷한 포맷의 ‘짝’의 제작진이 만든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다. 일반인 솔로 남녀가 해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파악하면서 마음에 맞는 짝을 고르는 내용이다.

다만 출연진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다. 각본 없는 연애 드라마로 호평받은 채널A의 ‘하트시그널’ 속 남녀가 그랬듯 ‘연애도시’ 역시 출연진 모두 선남선녀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스타가 아니라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잘생기고 예쁜 출연자들을 보는 재미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경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정춘 남녀들이 만큼 외국의 한 공간에 두기만 해도 각양각색의 ‘짝’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작진은 좀더 빠른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장치를 심어줬다.

아침에 각자 알아가고 싶은 상대를 골라 온종일 데이트 하고, 노을이 지면 과거 연애사를 상대에게 들려주는 식이다. 이러한 장치 덕분에 출연진은 서로 더 솔직해질 수 있고, 시청자도 자신이 출연진이 된 듯 더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다.

다만 ‘짝’이나 ‘하트시그널’ 등에서 솔하게 봐온 포

맷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시청률도 2%대에 머물고 있다.

‘연애도시’를 연출한 황성준 PD는 24일 “남녀가 서로 실패한 사랑, 즉 과거를 되짚어 보며 나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짝’이나 ‘하트시그널’은 출연자 직업과 경제력 등 배경이 애정 전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세속적 관점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연애도시’만의 차별성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시작한 tvN ‘모두의 연애’도 일반인의 연애를 소재로 한다.

‘연애도시’처럼 잘난 출연진과 낭만적인 배경은 없지만 대신 배우들이 화면을 채운다. 그들은 시청자의 사연을 연기로 옮긴다.

사연은 깔끔하게 끝내지 못한 전 여자친구와 ‘짝’을 타게 된 새로운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자 등 그야말로 갑갑하고 지질한, 우리 이야기다.

‘모두의 연애’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배우들의 연기가 끝난 후 신동엽·성시경이 운영하는 바(bar)에서 고민상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동엽과 성시경은 특유의 능청스러움을 발휘해 연기인 듯 아닌 듯 배우의 털을 쓴 사연자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사연자와 그 비슷한 경험을 겪는 시청자들은 그 속에서 위로 받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초반이라 극에서 바로 넘어가는 단계가 다소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 이야기처럼 사연자가 다음 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 시청자가 적지 않다. 시청률은 1%대에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머물고 있지만 신선한 포맷이 화제를 낳고 있다.

쉬는 중이든 하는 중이든 늘 고민일 수밖에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없 수 없다. 그에 더해 SNS의 발달로 자기 PR과 ‘관음증’에 가까운 만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연애’의 심우경 PD는 “시청자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기 시작했고, 남녀 간 연애 역시 그중 하나”라며 “연애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힐링’을 원하는 시청자의 니즈(needs)가 하나의 방송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성준 PD 역시 “일반인 리얼리티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보다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작자의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고 시청자도 공감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방송계의 꽃’ 연말 시상식 시즌 돌아왔다

MBC 연기대상 첫 포문

KBS 연예대상 생략키로

SBS 주말예능 인기 치열

연말 시상식 시즌이 돌아왔다. KBS의 경우 파업으로 연예대상은 쉬고 연기대상만 열기로 했지만 올 한 해도 예년 만큼 드라마와 예능이 풍성했던 만큼 대상 등 수상의 영예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시청자의 관심이 높다.

연기대상의 첫 포문은 MBC가 연다. MBC는 올해 파업으로 시상식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새 사장이 온 후 결국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될 ‘2017 MBC 연기대상’의 진행은 배우 김성령과 최사 4년 만에 MBC에서 마이크를 잡는 방승인 오상진이 맡는다.

MBC는 올해 시청자 투표가 아닌 전문가 심사로 대상을 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후보로는 연초 ‘역적’의 아모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성중, ‘죽어야 사는 남자’로 코믹 연기의 정수를 보여준 최민수, 연말 시청률 20%를 목전에 둔 ‘돈맛’의 장혁, 훈훈한 의학드라마 ‘병원선’의 하지원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대상은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대신 시청자들은 ‘올해의 드라마’, ‘최고의 캐릭터상’, ‘인기상’ 등 수상자 선정에 온라인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최고의 캐릭터상’에는 약역, 코믹, ‘생고생’ 등 다양한 부문이 소개돼 웃음을 준다.

KBS와 SBS는 나란히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연기대상을 개최한다. KBS는 오는 31일 오후 9시 15분부터 시상식을 생중계하며 MC는 미정이다.

KBS는 파업 중이지만 올해 ‘김과장’부터 시작해 ‘쌈, 마이웨이’, ‘아버지가 이상해’, ‘최강 배달꾼’, ‘고백부부’, ‘마녀의 법정’, ‘황금빛 내 인생’까지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이 많아 3사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상 후보로는 우선 두 ‘아버지’가 거론된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김영철과 ‘황금빛 내 인생’의 전호진이다. 두 배우는 절절한 연기로 KBS 주말극의 시청률을 견인했다. 또 연초 ‘김과장’으로 속 시원한 ‘뽕뽕 편

치’를 날렸던 남궁민,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통통 튀는 매력을 발산한 이우리, ‘황금빛 내 인생’에서 신데렐라로 떠오른 신혜선, 청춘극 ‘쌈, 마이웨이’로 사랑받은 박서준과 김지원, ‘고백부부’로 전국의 모녀를 울린 장나라, ‘마녀의 법정’으로 여성 캐릭터의 지평을 넓힌 정려원 등도 주요 수상 후보로 점쳐진다.

SBS도 오는 31일 오후 9시 5분부터 개그맨 신동엽과 배우 이보영의 사회로 연기대상을 생중계한다.

올해 SBS는 시대의 어두운 면을 꼬집는 장르극을 유독 많이 선보였다. 대상 후보로도 시청률이 30%에 근접했던 ‘피고인’의 지성고, 그 후속작으로 20%대 시청률을 기록한 ‘굿속말’의 이보영이 함께 거론된다.

이밖에도 시청률 20%를 넘긴 호극 ‘언니는 살아있다’와 이영애의 복귀로 화제가 된 ‘사임당, 빛의 일기’, ‘고물신인’ 양세준이 돋보인 ‘사랑의 온도’ 등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관심이 쏠린다.

연예대상은 파업 중인 KBS를 제외하고 MBC와 SBS만 개최한다.

‘2017 MBC 방송연예대상’은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개그맨 양세형, 모델 한혜진, 김민준의 진행으로 오는 29일 오후 8시 55분부터 생중계된다. 대상 후보로는 일단 올해도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거론된다. 그는 2006년부터 MBC에서만 6번이나 연예대상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받으면 타 방송사에서의 수상까지 합해 대상만 총 15번째다. 올해 초 휴식을 이유로 7주간, 9월부터는 파업으로 12주간 결방하며 시청자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검점사항이 있어 유재석이 15번째 영광을 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 SBS는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 ‘불타는 청춘’, ‘지기야-백년손님’, ‘정글의 법칙’ 등 평일 예능과 시청률 20%대를 왔다 갔다 하는 ‘미운 우리 새끼’ 등 주말 예능이 골고루 사랑받았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동시간대 예능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덕분에 추자현-위사오광(‘동상이몽2’), 이상민(‘미운 우리 새끼’) 등 새로운 스타들도 탄생했다.

대상 후보로도 ‘미운 우리 새끼’의 신동엽, ‘런닝맨’의 유재석,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등 여럿이 꼽혀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5 아침이 좋다 |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 30 그레이트 지리산 | 25 닥터 365 30 해피 시터즈 |
| 9 | 30 KBS 뉴스 |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0 KBS대기획 요리 인류 도시의 맛 (재) | 50 양코르 특선다큐멘터리 허균으로 만나는 중국 |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
| 11 |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 50 흑기사 (재) | 4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
| 12 |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 | 00 12 MBC 뉴스 20 세상기록 48 (재) |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총조림 55 테마스페셜 |
| 1 |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2017 ABU 로보콘 도쿄 청춘, 꿈을 설계하다 | | 25 MBC스포츠 제7회 전국 남녀종합 탁구 선수권대회 | 55 닥터 365 |
| 2 | 40 특집다큐 행복의 조건, 신뢰(재) |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 | 00 뉴스브리핑 |
| 3 | 00 행복만 지도(재) |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 00 뽀글이 사랑해 30 텔레온스타 4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 |
| 4 | 00 4시 뉴스집중 | | 10 문화사색 | 00 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55 닥터 365 |
| 5 |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켈리고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재) | 00 5 MBC 뉴스 15 PD수첩 (재) |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 3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날 |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총조림 |
| 7 |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 50 내 남자의 비밀 | 15 전생애 왓슨들 5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
| 8 | 0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20 UHD 한식 (재) 25 미워도 사랑해 | 30 글로벌 24 5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 55 하하랜드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
| 9 | 00 KBS 뉴스 9 40 특별기획 신해양 실�크로드 크루즈 | | | |
| 10 | 30 KBS 뉴스라인 | 00 흑기사 | 00 로봇이 아니야 | 00 이판사판 |
| 11 | 00 문화의 향기 5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10 김성민의 영수증 | 10 라디오스타 1~2부 | 10 잔혹하고 아름다운 연애도시 1~2부 |
| 12 | 45 인간극장 스페셜 (재) | 20 세상의 모든 디큐(재) |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 30 나이트라인 |

| EBS1 | | |
|-----------------------|----------------------------------|---------------------------|
| 05:00 왕초보 영어 | 09:40 글로벌 애반 찾아 삼만리 |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
| 05:30 세계건강문록 아틀라스 | 10:30 한국기행(재) | 16:30 한글이 야호(재) |
| (아시아기행 -치앙마이, 전통의 불빛)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단종박조림과 소고기 가지볶음) |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
| 06:00 한국기행(재)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
| 06:20 세계테마기행(재) | 12:00 EBS 정오 뉴스 | 17:30 똑똑맨 |
|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17:45 뽕뽕뽕 뽀로로 |
| 07:30 똑똑맨 | 12:40 지식채널e |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1~4 |
| 07:45 뽕뽕뽕 뽀로로 | 12:45 EBS 초대선(재) | 19:00 몬카트(재) |
| 08:00 당동당 유치원 1~2 | 13:40 미래강연 Q(재) |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
|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노(재) |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19:30 EBS 뉴스 |
| 08:45 한글이 야호2 | 15:00 마사와 곰 | 19:50 장수의 비밀 |
| 09:00 레미디비 |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 20:40 다큐 오늘 (파죽도우 불상의 전설) |
| 09:30 물방 |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 (음 11월 10일 戊子)

| | | | |
|----------|--|----------|---|
| 子 | 48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유익하다. 60년생 발성하게 된 사실의 원인 요소에 주목하라. 72년생 지금이야말로 깔끔하게 보완하기에 지극히 적절한 시기이다. 84년생 현상이 보이던 신 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50, 11 | 午 | 42년생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자. 54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 있다. 66년생 현대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78년생 상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90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다. 행운의 숫자 : 77, 57 |
| 丑 | 49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61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73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85년생 박차를 가한다면 초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행운의 숫자 : 40, 39 | 未 | 43년생 기본적 양상과 조화를 이루어야겠다. 55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67년생 치기 날 것이니 겁내지 마라. 79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91년생 상부상조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행운의 숫자 : 60, 20 |
| 寅 | 50년생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2년생 다수자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74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될 것이라. 86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3, 14 | 申 | 44년생 원거리로부터 오는 행운이 앞차다. 56년생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68년생 시작은 별다른 문제도 없이 좋았다가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붙을 수 있다. 80년생 배짱없이 자제히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7, 68 |
| 卯 | 51년생 관제 구실을 주의 해야겠다. 63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75년생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적응하기 시작하면 익숙해진다. 87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히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1, 70 | 酉 | 45년생 평소 소의 구실을 야기 시켜 왔던 부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57년생 절적인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단감해진다. 69년생 기대에 어긋나겠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81년생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16 |
| 辰 | 52년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 64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76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88년생 함께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4, 08 | 戌 | 46년생 영예를 얻거나 이익이 따를 수다. 58년생 여태까지의 판세에 비추었을 때 앞으로 다른 의미가 없으니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70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82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 부작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0, 40 |
| 巳 | 53년생 우연히 옆에 같이 있다가 열렬결에 피해를 볼 수 있다. 65년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자. 77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89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착전에 불교한 구도이니라. 행운의 숫자 : 15, 60 | 亥 | 47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59년생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타인에게는 필요로 할 수 있다. 71년생 백 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83년생 사소한 것이 큰 결실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7, 93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